

경제포커스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전인우(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팀 연구위원)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

신창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장)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팀 연구위원

iwjun@kosbi.re.kr

I. 서론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적인 이윤만을 획득하는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사업체 사업주들이 임금노동을 선택하게 되어, 이들 사업체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달리 오히려 국민경제적 역할이 강화되는 사례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성장이 이루어지면 채무, 행정, 규제, 사회적 책임 등의 부담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여 소규모 사업체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른 생산자동화, 아웃소싱, 지식서비스 사업기회, 회계 등 관리 소프트웨어, 통신수단 발전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 등의 발전은 소규모 사업체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도 소규모 사업체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오랫동안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감소하다가 1970년대 중반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산업조직론 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위덕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자영업 정책 성과지표 개발과 계측(2006),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방안(2006),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2005), 대중소기업 협력지수 개발 및 적용(2005) 등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력의 경영능력 신장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부문은 과잉화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생력의 제고와 동시에 구조개선이 요구되는 부문이 되고 있다. 서비스업 경우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영세브랜드 난립과 공급 과잉으로 한계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에 속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업의 경우 중소유통업은 대형유통점 및 홈쇼핑 등 신업태의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왔다. 1998년 70만6천개에 이르던 영세소매점은 2005년 현재 62만6천개로 11%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KDI(2004), 중소기업연구원(2006) 등 각종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주(자영자 + 고용주)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소득 순이 낮고 신용불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애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 문제는 국민경제적 차원 이외에도 소상공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경제적 차원의 문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경제내에서 소상공인의 업종별 구조 및 특성은 그 지역경제내에서의 1차 산업의 위상 그리고 2차 산업의 지리적·업종별 분포 및 이와 연계되거나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3차 산업의 활성화 정도 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업종별 구조 및 특성은 다소 상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적 과제도 달라지게 된다.

더욱이 2006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이외에 지자체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 마련과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자료,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에 대한 소상공인 위상 및 경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지역경제내에서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위상

1.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분포

<표 1>은 서울 지역내에서의 소상공인의 사업체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서의 소상공인은 2004년 현재 서울 지역 전체 사업체의 87.1%, 서울 지역 종업원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지역내에서 사업체와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2000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그밖에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업체당 종업원 규모는 2000년 현재 1.97명 정도였으나 2004년 현재는 1.99명 정도로 소폭 상승하여 규모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의 업체당 종업원 규모를 환산해보면 2000년과 2004년 각각 1.92명, 1.95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체가 전국의 소상공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5%에서 2004년 현재 23.1%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서울 지역의 비중이 2000년 24.1%에서 23.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통계의 변화는 전국에서의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사업체수나 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그 위상은 다소 줄었음을 보여 준다.

<표 1> 서울 지역내 소상공인의 위상

(단위 : 천개, %)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합계
					소상공인		
2000	서울	사업체수	3,761 (0.5)	25,720 (3.7)	598,751 (86.2)	664,789 (95.8)	694,270 (100.0)
		종업원수	627,994 (20.3)	690,820 (22.4)	1,183,686 (38.3)	1,771,059 (57.3)	3,089,873 (100.0)
	전국	사업체수	10,053 (0.3)	76,803 (2.7)	2,549,376 (89.0)	2,777,278 (97.0)	2,864,134 (100.0)
		종업원수	1,853,260 (16.1)	2,457,601 (21.3)	4,906,148 (42.5)	7,220,047 (62.6)	11,530,908 (100.0)
2004	서울	사업체수	2,062 (0.3)	27,442 (3.9)	619,836 (87.1)	681,802 (95.9)	711,306 (100.0)
		종업원수	564,668 (18.2)	771,920 (24.9)	1,234,138 (39.9)	1,759,775 (56.8)	3,096,363 (100.0)
	전국	사업체수	4,952 (0.2)	84,814 (2.8)	2,677,870 (89.2)	2,913,409 (97.0)	3,003,180 (100.0)
		종업원수	1,620,947 (13.5)	2,813,201 (23.4)	5,212,062 (43.3)	7,602,182 (63.2)	12,036,330 (100.0)

주 : ()는 비중

그리고 <표 2>와 같이 소상공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경기지역과 더불어 소상공인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내에서 음식점업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운수업의 경우는 서울지역의 비중이 28.6%로서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지역간 비중(B)과 전업종의 소상공인 지역간 비중(A)을 단순 비교하여 보면 서울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인구비중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서울 지역을 비롯하여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소상공인의 수도권 집중화(2004년 현재)

(단위 : %, %p)

구분	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 ¹⁾	전업종(A)	인구(B)	(A)-(B)
서울	20.3(1)	18.2(1)	28.6(1)	19.0(1)	23.1(1)	20.8(2)	2.3
부산	9.0(3)	8.4(3)	8.7(3)	9.2(3)	8.6(3)	7.5(3)	1.1
대구	5.8(6)	5.6(6)	5.8(5)	6.4(5)	5.9(5)	5.2(5)	0.7
인천	4.7(8)	4.9(7)	5.8(4)	4.7(7)	5.0(7)	5.4(6)	-0.4
광주	3.1(13)	2.8(14)	3.2(9)	3.6(11)	3.0(12)	3.0(14)	0.0
대전	3.0(14)	2.9(13)	2.7(13)	3.1(14)	2.9(14)	3.1(11)	-0.2
울산	2.0(15)	2.5(15)	1.7(15)	2.3(15)	2.0(15)	2.2(15)	-0.2
경기	16.4(2)	17.7(2)	17.6(2)	17.3(2)	17.8(2)	22.0(1)	-4.2
강원	4.0(11)	4.8(8)	2.9(10)	3.6(12)	3.7(11)	3.1(12)	0.6
충북	3.3(12)	3.5(12)	2.8(12)	3.2(13)	3.0(13)	3.1(13)	-0.1
충남	4.4(10)	4.4(9)	2.9(11)	4.1(10)	3.8(9)	4.0(8)	-0.2
전북	4.5(9)	3.6(11)	3.5(8)	4.3(9)	3.7(10)	3.8(9)	-0.1
전남	5.1(7)	4.4(10)	2.6(14)	4.5(8)	3.9(8)	3.8(10)	0.1
경북	6.1(5)	7.1(5)	4.4(7)	6.4(6)	5.7(6)	5.5(5)	0.2
경남	6.8(4)	7.8(4)	5.0(6)	6.8(4)	6.5(4)	6.5(4)	0.0
제주	1.5(16)	1.4(16)	1.7(16)	1.3(16)	1.3(16)	1.1(16)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는 순위

지역간 소상공인의 비중과 인구변수와의 관련성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경쟁수준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예상된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지역간 비중은 인구의 지역간 비중 및 지

역별 인구밀도, 지역내 경쟁정도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지역간 비중과 인구의 지역간 비중간의 상관관계 및 지역별 인구밀도와 소상공인의 지역간 비중간의 상관은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도 많아진다는 유효수요론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력이 있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급자인 소상공인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소상공인들이 자체 평가한 경쟁정도(5점 척도)와 소상공인의 비중간의 상관관계는 0.529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쟁정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측정되는 소상공인의 비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해볼 때 서울지역에서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쟁정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업종별 소상공인 비중과 인구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전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
인구구성비	0.978***	0.975***	0.985***	0.943***	0.984***
인구밀도	0.742***	0.722***	0.625***	0.837***	0.682***
인구접근도	-0.401	-0.373	-0.322	-0.468*	-0.403
경쟁정도	0.529**	-	-	-	-

주 : ***는 99%, **는 95%, *는 90% 신뢰수준이며, 인구접근도는 km2당 인구를 동일간격으로 배치할 경우의 개인간 거리

2. 지역별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소상공인들의 분포도 이외에 경영성과 측면에서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이익규모를 평가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지역별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은 2004년 현재 소매업 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이익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익성과는 2004년 현재 16개 광역시 단위에서 중간정도의 순위를 유지하였다. 음식점업이나 개인서비스업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서울지역의 소상공인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소매업의 이익실현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대형유통점과 신업태의 출현으로 인한 영세 소매점의 어려움은 그나마 서울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했음을 시사한다.

〈표 4〉 지역별 이익실현의 상대적 비교(2004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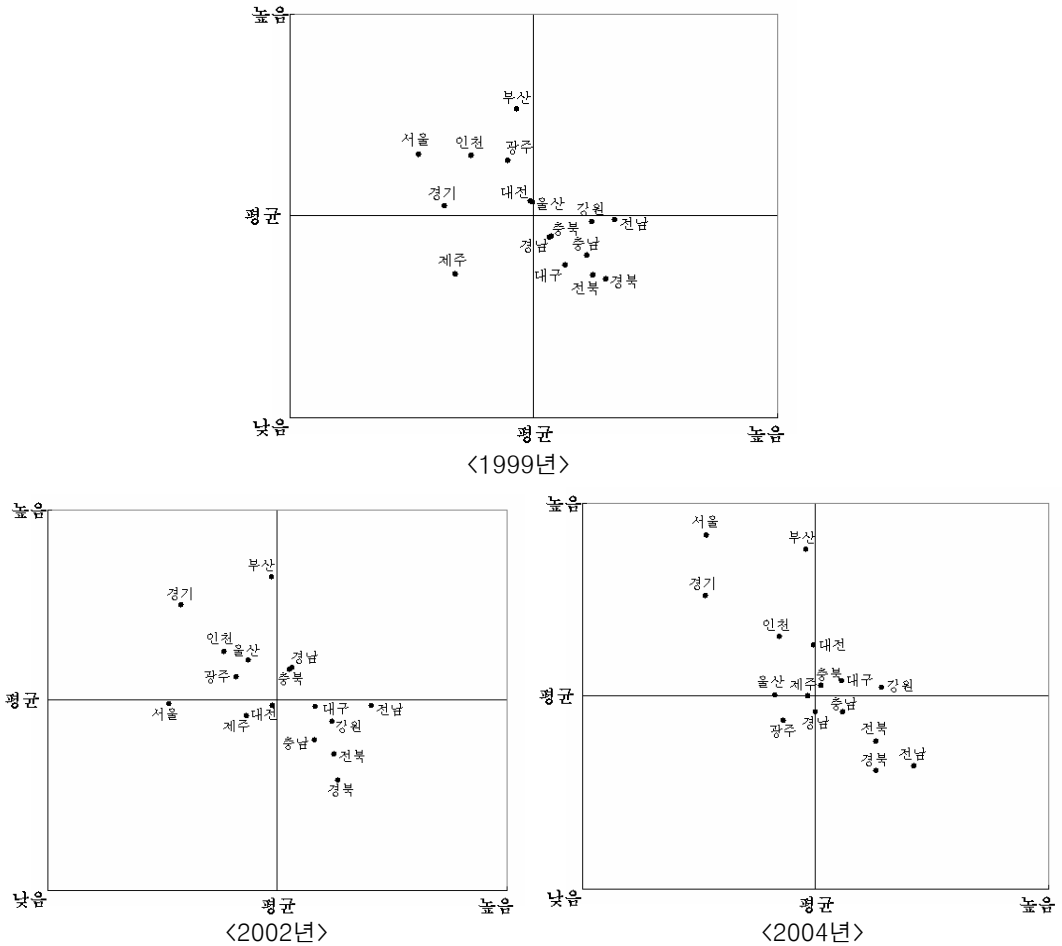
구분	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	구분	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
서울	1.00(1)	1.00(8)	1.00(8)	강원	0.72(8)	1.09(3)	0.92(14)
부산	0.97(2)	1.31(1)	1.19(2)	충북	0.72(7)	0.94(9)	1.06(6)
대구	0.73(6)	0.93(10)	0.94(12)	충남	0.68(12)	0.86(13)	0.90(15)
인천	0.81(4)	1.01(6)	1.1(5)	전북	0.62(14)	0.83(14)	0.96(11)
광주	0.66(13)	0.90(11)	0.98(10)	전남	0.58(15)	0.77(16)	1.00(9)
대전	0.80(5)	1.01(7)	1.16(3)	경북	0.57(16)	0.79(15)	0.74(16)
울산	0.71(9)	1.01(5)	1.00(7)	경남	0.68(11)	0.87(12)	0.94(13)
경기	0.89(3)	1.05(4)	1.15(4)	제주	0.70(10)	1.19(2)	1.21(1)
강원	0.72(8)	1.09(3)	0.92(14)	제주	0.70(10)	1.19(2)	1.21(1)
전국	0.81	0.99	1.02	전국	0.81	0.99	1.02

주 : 서울지역을 1로 평가한 것이며, ()는 순위

한편, <그림 1>과 같이 표준화한 지역내 소상공인 비중을 가로축으로 설정하고, 표준화한 전업종의 업체당 소상공인 이익규모를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16개 광역시도 현황을 나타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체당 이익규모의 지역간 순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업체당 이익규모의 순위는 1999년중 16개 광역시도 지자체중 2위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중 순위가 급감하여 8위를 기록하였고, 2004년 현재 1위로 올라섰다. 이와 같은 급격한 순위변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1999년, 2002년, 2004년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업체당 이익규모의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에 비해 2002년중 업체당 이익규모가 줄어든 지역은 서울 지역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해있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통계를 보면, 2002년 당시 서울 지역의 업체당 이익규모가 상당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의 이익규모 감소가 전반적인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업체당 이익규모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02년중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당 이익규모의 전국 순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 표준화는 16개 광역시도별 소상공인 비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표준편차 정규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지역별 소상공인 업체당 이익규모 변화
(가로축: 지역내 소상공인 비중, 세로축: 업체당 소상공인 이익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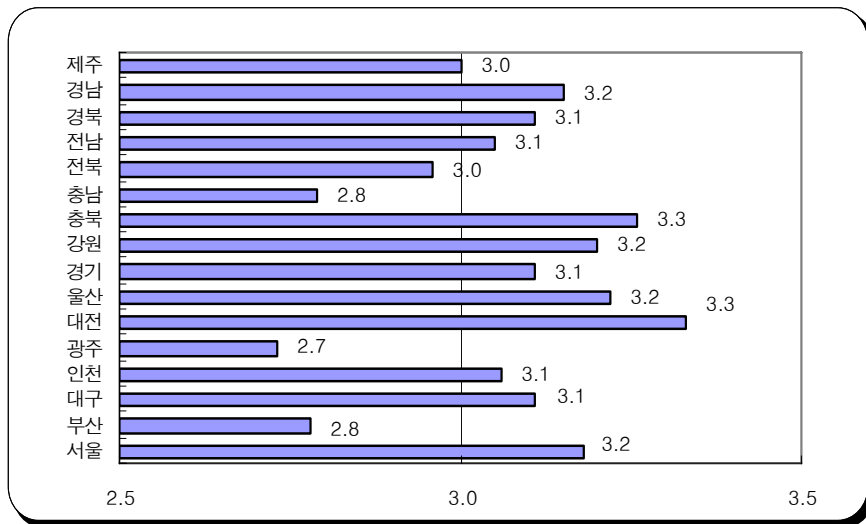
3.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성장단계

그러면, 과연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난 1999년 이후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의존성 심화로 인해 자생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은 과거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정책이었고, 소상공인 부문은 정책의 사각지대로서 상당부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돌아가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들어서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실업률 해소를 위한 소

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지원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정치경제학적 논리에 의한 정책추진의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정부의 지원효과가 크게 가시화 되기 어려운 부문이라서 정책의존성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와 영세규모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부문이냐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수준을 자가진단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서울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은 자신들의 경쟁력이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 이에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의 성장단계별 업체 분포가 경쟁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당초의 예상대로 성숙기 또는 안정기에 있는 사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쟁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성장기에 있는 사업체의 비중이 많은 지역일수록 경쟁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부 여건에의 적응을 마친 상태에서 점차 세를 확장하는 업체들이 보다 성장하여 성숙기 또는 안정기에 들게 되면 경쟁력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성장기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아직은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지역별 소상공인의 종합 경쟁력(5점 척도)



2) 이하의 통계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 295명을 포함하여 전국의 1,206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추출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인우(2006)를 참고할 수 있다.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성장단계를 살펴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사업체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 안정된 매출이 발생하는 상태인 성숙기 또는 안정기에 있는 업체의 비중이 50% 정도이고, 외부여건에의 적응을 마치고 사업체가 점차 세를 확장하고 있는 성장기 업체의 비중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은 15.6%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12.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경쟁력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 중 상당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분포 및 경쟁력과의 상관관계

구분	성장단계				전체
	기반조성기	성장기	성숙/안정기	업종전환 고려기	
경쟁력과의 상관관계	-0.083	-0.446*	0.520**	-0.367	-
서울	13.6%	20.3%	50.5%	15.6%	100%
전국	14.1%	22.7%	50.4%	12.8%	100%

주 : **는 95%, *는 90% 신뢰수준

III.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정책 시사점

1. 경영애로 실태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가진단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경쟁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은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애로점을 <표 6>에서와 같이 1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출해보면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경기 부진, 자금조달, 과당경쟁, 임대료 부담, 대형점 입점, 인건비 및 구인난 등의 순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요 애로요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 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6〉 지역별 사업체 운영 애로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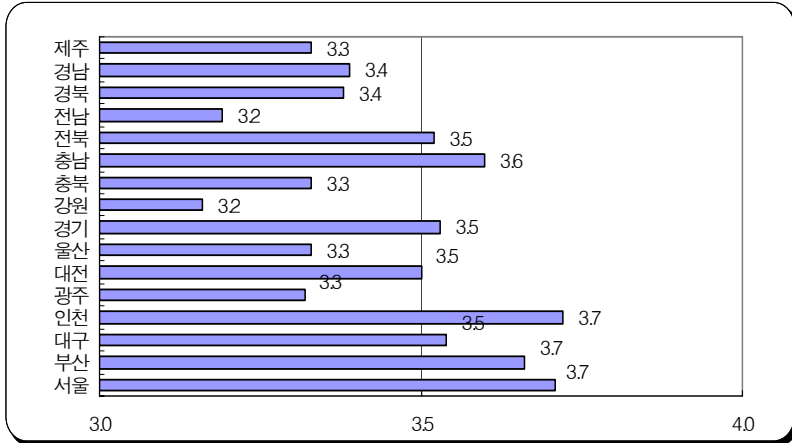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운영의 애로 사항											
	경기 부진	자금 조달	인건비 및 구인난	세금	임대료 부담	입지	대형 업체 입점	원재료 비용	과당 경쟁	정부 단속 및 규제	영업 및 마케팅	기타
서울	58.3	9.2	4.4	3.7	6.4	1.4	5.8	0.7	7.5	1.0	1.7	0.0
전국	61.0	4.9	4.5	2.4	6.0	3.2	4.0	2.2	7.1	1.2	2.4	1.2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에 있어서 애로를 겪는 원인을 살펴보면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이 없다(36.6%)’ 는 소상공인의 비중도 많지만 정책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금리가 높다(20.3%)’ 는 점과 ‘신용대출이 곤란하다(18.3%)’ 는 점을 자금조달시 주요 애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최대의 애로요인인 경기부진 요인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장 심각한 애로요인인 것으로 추출되고 있어서 논의로 하더라도, 금융 여건이 여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을 주요 경영애로로 지목한 점에 정책 관계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그밖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과잉화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자금조달에 이어서 주요 애로인 과당경쟁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쟁 정도를 살펴보면, 인천에 이어 가장 심한 지역이 서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고).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경쟁이 심한 지역은 인천, 서울, 부산, 충남, 대구, 경기 등의 순이고, 이에 반해 울산, 충북, 제주, 광주, 전남, 강원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덜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심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표 3>과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쟁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 지역의 경우는 인구비중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이라는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3)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애로사항이 없다’가 41.9%, 자금조달시의 애로 원인으로 ‘금리가 높다’가 16.1%, ‘신용대출이 곤란하다’가 13.8%이다.

<그림 3> 지역별 경쟁 정도



그런데 여타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은 <표 7>에서와 같이 서울지역의 경우에 가격을 폭락시키고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애로는 인력채용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7> 경쟁으로 인한 애로 사항

구분	경쟁으로 인한 애로 사항								전체
	애로사항 없음	고객/ 시장 격감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	가격 폭락	임차료 등 비용 급증	인건비 상승	인력 구인 난	극심한 인력 이동	
서울	18.0% (11)	32.9% (15)	8.8% (5)	23.7% (3)	6.8% (7)	7.5% (2)	1.7% (6)	0.7% (3)	100%
전국	21.0%	42.8%	6.6%	17.9%	6.5%	3.6%	1.2%	0.5%	100%

주 : ()는 해당항목 비중의 지역간 순위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 사항중에서 고임금과 잦은 이직이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애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인력채용에 관해서 애로사항이 없다는 비중이 낮아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인력채용 여건이 좋은 편이지만 고임금 문제와 잦은 이직의 문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부문의

임금수준은 여타 중소기업체에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인력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잦은 이직이 문제라면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표 8〉 인력 채용 관련 애로 사항

구분	인력 채용 관련 애로 사항							전체
	애로사항 없음	고임금	잦은 이직	인력 자체가 없음	인력의 자질 부족	인력 정보 부족	기타	
서울	41.0% (14)	33.6% (2)	12.5% (3)	1.7% (13)	7.8% (3)	3.1% (2)	0.3% (1)	100%
전국	52.4%	21.8%	10.4%	8.0%	5.5%	1.8%	0.1%	100%

주 : ()는 해당항목 비중의 지역간 순위

소상공인의 인력 부족 정도를 살펴보다도, 서울지역은 인력부족율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현재 종사자를 감안한 인력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인력 부족률을 보면, 전국의 평균적인 인력부족율은 11.8%인 가운데 서울(17.1%)은 충북(23.7%), 강원(19.2%), 전북(16.8%), 경북(13.5%), 전남(12.1%) 등과 더불어 인력 부족률이 심한 지역에 속한다.⁴⁾

한편, 자금조달과 과당경쟁에 이어서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과 관련하여 서울 지역의 임대료 수준이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 점포에서 사업을 하는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은 전국의 15.3%를 크게 밀도는 9.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전세(8.5%)의 형태나 보증부 월세(31.5%) 형태보다는 재정부담의 능력이 부족해 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49.5%)의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료 부담은 사업상의 커다란 애로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부담에 이어서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대형업체 입점의 문제를 논의해보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주요 경쟁상대는 동종업종 대형업체(47.8%), 동종업종 소형업체(43.3%), 이종업종 대형업체(4.5%), 동종업종 소형업체(4.5%)의 순으로 동종업종 대형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형업체의 입점으로 인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상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 이외에도 동종업종 소형업체와의 경쟁하는 소상공인들의 비중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4) 인력부족율= (부족인원수/(부족인원수+ 현종사자수))×100

2. 정책 시사점

최근 몇 년전부터 소상공인의 과잉화로 인한 경쟁격화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과잉화와 더불어 경기 여건의 악화에 따른 매출부진하에서 근로자의 임금부담 및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은 창업유도보다는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업종이나 업태전환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수요가 높은 편임을 감안해볼 때 구조개선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시기에 있는 업체들은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구조개선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구조개선 정책의 추진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주요 애로요인인 과당경쟁의 문제 그리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인력채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구조개선 정책의 추진은 자금조달의 애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조달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간다면 신용대출도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임대료 부담이나 종업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애로요인 등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정책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별 사안별로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대중요법적인 정책의 개입을 통한 해결책 이외에도 시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상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므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은 주요한 정책의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더라도 양극화 완화를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반성장론 관점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부문이 갖고 있는 노동력 흡수의 효과를 고려해볼 때도 소상공인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적 논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보다는 정책추진 방향을 어떻

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금지원은 창업보다는 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증 및 대출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잉화를 해소하면서 사업성은 있되 자금이 부족한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창업은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생계형 창업은 지역경제에 부담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적인 소상공인은 업계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업체로서 소상공인 부문도 생계형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기여도가 높은 부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소상공인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량 제고를 위해 센터의 혁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가 운용하는 자금에 대한 상담추천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서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는 별개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금지원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 자금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의 또 다른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2005년에 발표된 영세자영업자 대책인 5.31 대책 이후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유료 컨설팅 정책과 관련한 예산확보의 부담, 유료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등의 문제를 고려해볼 때 서울시 차원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센터 상담사의 혁신 마인드 제고와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유료 컨설팅의 공급은 민간 컨설팅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민간시장과는 별개로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전인우,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6.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유통·재래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2007.5